

# 타투 관련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 나타난 타투 문양 분석

- 국내 · 외 사이트를 중심으로 -

정 경 희\* · 이 미 숙<sup>+</sup>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sup>+</sup>

## Analysis on the Tattoo Patterns used among Tattoo-related Internet Communities

- Focusing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Web Sites -

Kyung-Hee Chung\* · Mi-Sook Lee<sup>+</sup>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sup>+</sup>

(2006. 6. 7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inds and positions of tattoo patterns on the body in tattoo-related internet communities and professional web sites. For this purpose, 1,892 tattoo patterns were analyzed by sex(man and woma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nimal patterns(30.2%) occupied most, followed by character patterns(24.1%), geometric patterns(13.0%), natural patterns(10.3%), plant patterns(4.7%), mixed patterns(2.5%), and artificial patterns(2.2%). In patterns, dragon(10.3%) occupied most, followed by star(8.7%), trival(8.6%), woman(7.6%), skeleton(4.9%), and letter(4.8%).

Second, men's preference to pattern groups included animal patterns(30.8%), character patterns(28.3%), geometric patterns(14.6%), and natural patterns(6.0%). Among patterns, dragon(13.4%) was the most frequent, followed by trival(10.9%), woman(10.7%), and skeleton(7.1%). Women's preference to patterns groups included animal patterns(31.4%), natural patterns(17.3%), character patterns(17.2%), geometric patterns(10.5%), and plant patterns(10.0%). Among patterns, star(15.3%) was the most frequent, followed by butter-fly(10.5%), elf(9.2%), and dragon(9.2%).

Third, the positions of tattoos on the body included upper arm(26.6%), shoulder(10.8%), back(10.5%), the wrist(10.0%), the calf(7.5%), back bottom(7.0%) and the breast(6.3%). While men's preference to pattern positions included upper arm(38.2%), the wrist(13.7%), back(10.5%), the calf(9.4%), and shoulder(8.0%), women's preference to positions included back bottom(17.7%), shoulder(15.5%), back(10.5%), front bottom(8.2%), and the breast(7.8%).

Key words: Tattoo(타투), pattern(문양), internet community(인터넷 동호회), web site(웹 사이트)

## I. 서론

최근에는 피어싱과 같은 신체 장식술과 함께 타투가 중요한 대중문화로 부각되고 있다. 타투는 신체의 치장을 통해 특정한 의미를 표현하려고 하는 복식의 일종으로, 의복이 신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신분이나 정체성, 미적 감성 등을 드러내는 표시이듯이, 타투 역시 그러한 특성을 구유하고 있는 복식의 한 형식이다<sup>1)</sup>.

로트먼(Victoria Lautman)은 현대의 타투를 기존의 천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유일하고 영구적인 무엇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소망에 의해 나타난 상징적 표상이자 유행의 일면으로 간주하였다<sup>2)</sup>. 과거의 타투 문화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한 문화로서 '범죄자'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물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에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점차 완화되면서 타투는 서구패션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초에 이르러 타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전환되게 되었다. 그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 중의 하나는 미디어였다. 음악전문 방송인 MTV에 나왔던 많은 뮤지션들이 타투를 했고 그들이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면서 타투는 대중 속으로 점점 확대되었던 것이다<sup>3)</sup>. 비영구적인 전사 타투와 타투 제거 테크닉의 개발 뿐만 아니라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과 같은 하이 패션 디자이너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컬렉션에 타투를 이용함으로써 타투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내에서도 타투는 미적 감수성을 표현하는 패션의 주요한 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여성 혹은 남성들의 미용 타투에서 예술적 표현을 의도하는 예술 타투에 이르기까지 타투는 무시할 수 없는 대중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sup>.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타투 동호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도 타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타투가 패션 아이템으로써 유행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균일화, 획일화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만의 특별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즉 타투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내 스타일의 마크이자, 나에게 주는 증표, 나를 나타내는 적극적인 표현수단'인 것이다.

타투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윤정혜, 유영선(2001)<sup>5)</sup> 이수경(2003)<sup>6)</sup>, 김미영(2005)<sup>7)</sup>, 김영미(2005)<sup>8)</sup>의 연구가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서 표현된 사례별, 표현적 특징과 미적 가치를 분석한다는 사례는 있었지만, 타투의 문양 및 신체 위치에 대한 분석을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타투가 패션 아이템으로써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투의 문양 및 신체 위치에 대한 분석은 새로운 타투 문양 디자인 개발과 타투와 패션과의 접목을 통한 패션 아이템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타투를 독창적이면서 개성있는 토탈 코오디네이션을 완성시키는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타투 관련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와 전문 사이트에 나타난 타투 문양의 종류와 위치를 남녀 성별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선호 문양과 그 위치를 고려한 다양하고 예술적인 문양 및 도안, 기법, 소재 개발과 패션 타투 상품 및 타투 문양을 모티프로 활용한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먼저 타투에 관련된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타투의 어원 및 개념, 타투의 종류, 타투 문양의 상징성에 대하여 고찰한 다음, 타투 관련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와 전문 사이트에 나타난 타투 문양의 종류와 신체상 위치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4년 11월, 가장 많은 회원수를 확보하면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국내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중의 하나인 싸이월드(cyworld)의 'J-Tattoo'(www.jtattoo.cyworld.com)와 'TattooBuy'(www.tattoobuy.cyworld.com), 다음(daum)의 '가장 재밌는 문신 카페'(www.cafe.daum.net/tattoo333)와 '문신예술의 세계'(www.cafe.daum.net/tattoo)를, 국외 사이트로는 www.bme.zine.com과 www.everytattoo.com를 선정하였다. 그 밖에 '동방문신'과 'Tattoo Freedom'과 같은 사이트는 타투 자료가 위의 사이트의 것과 중복되거나 타투의 위치와 문양의 형태가 불확실한 것들이 많아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II. 타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 타투의 어원 및 개념

타투를 뜻하는 라틴어 스티그마(stigma)는 “뾰족한 기구로 찌, 노예나 범죄인들의 살갗에 새긴...자국, 오점”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sup>9)</sup>. 사전적 개념의 타투는 ‘문신’ 또는 ‘문신하다’의 의미에 앞서 ‘등등 경고하는 소리’ 그리고 ‘톡톡 두드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10)</sup>.

타투라는 용어는 1769년, 남태평양을 향해하고 돌아온 제임스 쿡(James Cook, 1728-1779) 선장에 의해 처음 영어로 소개되었다<sup>11)</sup>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쿡 선장의 타히티 첫 항해 이전에 이미 군사가(軍史家) 제임스 터너(James Turner) 경이 자신의 글에 ‘Tattoo’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여기에서의 Tattoo 역시 ‘복을 두드린다’는 의미를 지니며 군부대 내의 신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타투의 어원은 쿡 선장이 타투를 유럽에 전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가 타히티인들의 관습에 대해 기록한 저서에서 “그들은 그들의 몸을 동물의 뼈로 만든 작은 도구들로 눌러 찍거나 뚫어 흠집을 내고 그 흠집을 기름기가 있는 땅콩 따위를 태운 연기를 이용해 만든 진청색 또는 검정색의 염료로 채운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타투는 타히티 원주민들이 열 살이나 열두 살쯤 되었을 때 몸의 특별한 부분에 행한 Tatau(치다)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Tatau도 ‘두드리거나 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Ta’에서 온 것으로, 피부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쿡 선장은 또한 한 신문에서 타히티 주민들에 대해 “원주민들은 몸에 타투를 하며, 이것은 피부 밑에 검은색을 새겨 넣는 영구적인 방식이다. 남자들은 새 또는 개의 문양을 하고, 여자들은 대체로 손가락과 발가락의 Y관절 위에 Z모양의 문신을 하고 있다. 이 밖의 장식으로는 귀고리가

있으며 주로 한 쪽 귀에만 착용한다”라고 묘사하고 있다<sup>12)</sup>. 이와 같이 남태평양이나 서양의 타투는 ‘글씨가 아닌 그림’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타히티어의 ‘Tatu’와 의미가 같은 아랍어의 ‘dapp’을 살펴볼 때, 이 단어가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를 얼굴에 대고 작은 방망이를 이용하여 그 도구를 때리는 기술’<sup>13)</sup>을 함께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쿡 선장에 의해 타투라는 용어는 서구에 소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단지 ‘prick’이나 ‘mark’로만 알려져 있었다.

타투(tatoo)라는 용어는 독일어로는 Tatowirungz, 불어로는 Tatouage, 이탈리아어로는 Tatouaggio 등으로 거의 모든 유럽에서 존재해 왔다<sup>14)</sup>. 일본에서는 분신(文身 ぶんしん) 또는 이레즈미(入墨 いれずみ, irezumi)라고 하는데, いれ(ire)는 ‘삼입하다(introduce)’를 ずみ(zumi)는 ‘인디언 잉크(Indian ink)’를 의미한다<sup>15)</sup>.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자문(刺文) 또는 자청(刺靑)이라고 하였으며, 먹을 사용한다고 하여 입묵(入墨), 글씨나 문양을 새겨 넣는다고 해서 자자(刺字)라고 한다<sup>16)</sup>.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타투는 일반적으로 피부나 피하조직에 바늘로 찔러 상처를 내고 먹물이나 다른 물감으로 글씨, 그림, 무늬 등을 새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타투라는 용어는 피부에 직접 새기는 타투 본래의 의미와 더불어 피부를 미적으로 표현하는 피부장식에 해당하는 바디페인팅, 메이크업, 바디프린팅과 실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때로는 바디 아트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의 타투는 자기 내면의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 아이템으로서 영원성을 지닌 신체 장식으로서 인식되는 과거의 타투에서 변화된 현대의 일시적인 피부장식술을 포괄하는 확장된 의미를 가진다.

### 2. 타투의 종류

#### 1) 영구적인 타투

영구적인 타투에는 피부색에 따라서 상흔 타투와 색소를 피하에 침착시키는 타투가 있다. 피부색이

어두운 인종에서는 상흔 또는 난자의 방법을 이용하는데, 피부를 베어 흠집을 낸 후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대로 두어 우묵한 직선의 흉터가 피부에 나타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그림 1). 이를 상흔(傷痕) 타투 또는 반흔 타투(癍痕文身)라고 하기도 한다<sup>17)</sup>. 검은 피부로 인해 발색이 힘들기 때문에 몸에 상흔을 입혀 변형된 돌기 형태 등이 나타나게 한 것으로, 이는 남성에 있어서는 인내의 상징이며 여성에 있어서는 남성에 대한 복종, 충성의 농도 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타투 가운데 조금 더 일반적인 것은 켈로이드 형태의 상흔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불에 태운 송진을 상처에 발라 부풀어 오르게 하여 일종의 피부종양인 켈로이드를 만드는 방법의 타투이다. 이와 같은 수법은 널리 퍼져 있지는 않으나, 아프리카에서는 수단인이나 텐토티가 주로 사용하고 있다. 중부 아메리카에서는 케바족 사이에 번성했으며, 멜라네시아에서는 산타 크루즈섬에서만 행해졌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얼굴과 가슴, 등에 까지 상흔을 냈다고 한다. 켈로이드 형태의 상흔은 서아프리카의 반투족이나 나일강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으며, 여성들이 주로 이용한다. 아메리카에서는 고대 마야인에게서 볼 수 있었고, 중미(中美)의 수모족이나 부리부리족은 지금도 행하고 있는데, 상처 구멍을 불에 태운, 일종의 송진으로 덮어 발라 만든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부와 북부에 사는 토인들도 켈로이드 형태의 타투를 하고 있다. 남부 멜라네시아의 뉴헤브리디스 제도에서는 별 모양의 장식적 상흔을 즐겨 만들었고, 폴리네시아에서는 오직 피지 제도의 여성들만이 장식 상흔을 만든다고 한다.

피부색이 밝은 인종에서는 특정 색소를 피부에 물들이는 방법(그림 2)이 행해졌다. 이것은 세부적으로는 피부를 바늘로 찔러 먹을 넣는 방법, 칼로 피부를 절개한 후 먹을 넣는 방법, 피부에 먼저 먹칠하고 바늘로 찌르는 방법 등이 있다<sup>18)</sup>. 타투를 할 때는 우선 대상이 되는 모티프를 피부에 표시하는데, 직접 붓 같은 것으로 무늬를 그리거나 무늬가 새겨진 목제(木製) 스탬프를 눌러 찍는 방법이 있다. 유럽의 신석기시대나 금석병용기(金石併用期)의

유물 중에서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 듯한 테라코타의 스탬프가 발견되었다<sup>19)</sup>. 피부에 모티프가 그려지면 미리 선택한 색소를 적신 바늘로 찔러 시술을 하는데, 이를 자문신(刺文身)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데, 사용되는 도구는 지역마다 다르다. 북동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바늘구멍에 물감을 칠한 실을 꿰어 데생을 꿰매나가는 방법, 즉 봉타투(縫文身)가 행해지고 있다<sup>20)</sup>. 사용되는 도구는 사람 또는 새의 뼈로 만들었는데, 때로는 가시나 다듬은 나무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타투의 색채로는 검은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청색이나 녹색 그리고 적색은 드물게 이용된다. 검은색은 구분이 명확한 집단 간의 변화 상태와 내부 사람의 통합을 의미하며, 붉은 색은 힘과 건강, 민첩성과 기민성을 의미하며 외부세계와의 감각적인 접촉이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신체부위에 색칠하게 되는데 신체 말단 부분이나 얼굴 주위에 행해진다<sup>21)</sup>.

## 2) 비영구적인 타투

비영구적인 타투에는 헤나 타투(그림 3)나 플라노 아트가 대표적이며<sup>22)</sup>, 바디 페인팅(그림 4), 바디 프린팅, 타투 실, 크리스탈 타투, 타투 스티커, 타투 스탬프 등이 포함된다.

헤나는 아랍어로, 염료로 사용되는 식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열대성 관목인 'Lawsonia inermis'라는 학명을 가진 1~3m의 키로 자라는 나무의 이름이며, 이 식물의 잎을 따서 말린 다음 가루로 만든 것을 헤나라고 한다. 헤나는 인도의 전승 의학인 आयुर्वेद(Āyur-veda)<sup>23)</sup>에 의해 몇 천년 전부터 피부병의 예방, 지혈, 부스럼, 화상, 타박상, 방부제, 피부염의 약재로 널리 사용되어져 왔으며 헤나 잎의 '로소니아(lawsonia)'라는 주성분은 항균, 살균작용을 하며 체온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 인도어로 멘디(Mehndi)라고도 하며, 인도 라자스탄 지방의 헤나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인도 타투로 불리기도 한다. 인도와 이집트에서 결혼 의식의 하나로 내려온 헤나는 살갗 염색을 말하는데, 헤나 염료를 사용해 몸에 문양을 그리는 것으로 약 2주 정도 지

속된다.

플라노 아트는 남태평양이나 지중해 연안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 자생하는 천연식물 추출물인 플라노를 액화시켜 피부에 섬세하게 그리는 피부 예술을 말한다. 플라노의 어원은 '귀족의 식물(Flano- Flora of the Noble)'이란 뜻이다. 플라노는 헤나처럼 천연식물 추출물을 피부 착색제로 사용한다. 플라노는 종교의식의 신성한 용도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피부계와 후각, 두피계통에 신비스런 효능이 있어서 이를 치료하는 약초로 사용되어왔다. 플라노 아트 역시 천연 식물성 염료인 플라노를 사용하며 약 2, 3주 후에는 자연스럽게 지워진다<sup>24)</sup>. 방식은 헤나와 같지만 헤나가 시술후 오랜지나 붉은 색인 반면, 플라노는 짙은 밤색을 띤다.

그 밖에 비영구적인 타투에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타투 실, 크리스탈 타투, 타투 스티커, 타투 스탬프 등이 있으며, 빈디 패션도 타투에 관여된 보조패션이라고 할 수 있다. 타투 실은 원하는 그림을 잘라 물에 적신 후에 붙이기만 하면 완성되는 타투로, 이것은 17-18세기 유럽의 상류 귀족여성들 사이에 유행하던 패치(patch)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sup>25)</sup>. 현대의 타투 실과 같은 일회성 타투는 자신이 원할 때마다 그 문양을 바꿀 수 있어 전통적인 타투의 영원성(permanency)을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 3. 타투 문양의 상징성

타투는 타투를 행하는 자의 개성과 신념, 소속집단, 연인간의 애정, 충성심, 성적 매력, 인체의 아름다움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이처럼 타투는 인체에 여러 가지 방법과 의미를 두고 새겨지며, 타투 문양의 종류는 이러한 타투를 하는 의미와 목적에 직결되어 나타난다. 동양의 타투 문양은 주로 인간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때로는 도움을 얻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많으며, 서양의 타투 문양은 주로 개인적이고 본인을 대표할만한 그림이나 사물을 표현하여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소속집단을 상징하는 문양들이 많다. 현대에 와서 타투 문양은 타투 색상과 정교해진 표현기법의 발달, 타투 문양의 동서양 표전현상으로 더욱더 다양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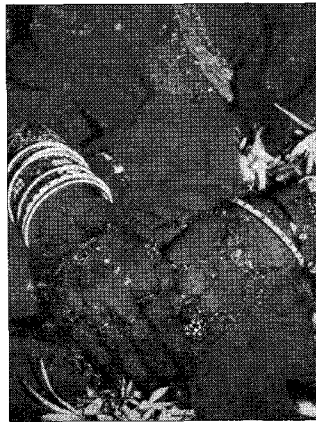
타투 문양 중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양으로는 별, 해, 용, 호랑이, 나비, 잉어, 여자, 장미, 연꽃, 해골, 트라이벌 문양이 있다. 별 문양은 최고(prime)의 의미를 가진다. 일본인과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는 숭배의 대상이었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별 문양은 '신'을 뜻하는 기호이자 여신



〈그림 1〉 상흔 타투, *Decorated Skin-A World Survey of Body Art*, p. 146.



〈그림 2〉 색소를 피하에 침착시킨 타투, *A Source Book: Tattoo History*, p. 187.



〈그림 3〉 헤나 타투, *Decorated Skin-A World Survey of Body Art*, p. 178.



〈그림 4〉 바다 페인팅, *Decorated Skin-A World Survey of Body Art*, p. 154.

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해 문양은 고대 동방문명에서는 ‘태양신’으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의 눈으로써 승배의 상징이었다. 용 문양은 길상으로써 큰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며, 동양에서는 은혜 깊은 하늘의 존재이지만 서양에서는 지하에 속하는 파괴적인 악을 상징한다. 극동에서 용은 초자연적인 힘, 지혜, 강함, 숨겨진 지식, 생명을 부여하는 강이나 바다의 힘, 천자(天子)로서 황제와 고귀한 현자를 상징 한다<sup>26)</sup>. 호랑이는 병귀나 사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어 벽사진경(壁邪進慶)을 상징한다. 역사와 문학에서 호랑이는 주로 열정, 성스러움, 심판자, 고독한 지배자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며, 초자연적 용맹성, 강력한 조정자, 종교적 본능, 신령, 희생과 헌신의 아니마(animua), 신성한 지도자 혹은 매개자의 상징이다. 나비는 연인과 한, 부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색상과 무늬가 화려해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한다. 역사와 문학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을 찾는 남성, 결혼의 기쁨 등을 상징하며 서양에서는 부활, 순수한 영혼, 신의 불, 죽은자의 영혼, 여신 등의 상징으로 자주 쓰인다. 봉황은 성인(聖人)의 탄생에 맞추어 세상에 나타나는 상상의 새로 평화로운 세상과 상서로움을 상징한다. 잉어 문양은 용종(龍種)으로, 입신출세를 상징하는데, 동양문화에서는 이득과 의지를 뜻하며, 일본에서는 사랑과 신의 사자를 의미한다<sup>27)</sup>. 그 외에도 잉어는 200년 이상을 살기도 하여 장수를 상징하며, 물속에 나와서 오래 살고 거센 역류에 도전하는 힘이 있으므로 인내와 용기를 상징한다. 여자를 모티프로 한 문양은 주로 여성이 음란하게 표현되어 타투의 동기 중 성적 욕망이나 성적 도착의 억압과 같은 것을 상징한다. 장미 문양은 아주 복잡한 상징이며 모순된 의미를 가지는데 천상적인 완전성과 지상적 정념을 나타낸다. 장미는 완전함, 충만함, 완성, 생명의 신비, 생명의 심장부, 불가지, 미, 은총, 행복을 나타내는 동시에 음탕함, 정념 등을 나타내며, 관능, 유희를 상징한다. 또한 장미는 여신들의 꽃으로서 사랑, 생면, 창조, 풍요, 미를 상징하고 처녀성을 상징한다<sup>28)</sup>. 연꽃은 속세에 때 묻지 않은 청정한 정토(淨土)를 상징하여 연뿌리와 줄기가 서로 얽혀있는 것은 형제애를, 연꽃열

매와 씨앗은 자식을 많이 가지기를 소망하는 유교적인 관념과 관련되어 조선시대에도 길상문양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해골 문양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양으로서 죽음, 죽어야 할 생명, 시간과 인생의 무상함을 상징한다. 큰 낫과 모래시계를 가지고 있는 해골은 생명을 잘라버리는 <베는 자>를 나타낸다. 또한, 두개골은 생명의 덧없음, 공허함,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교훈, 잊혀진 자, 죽음에 이른 태양, 죽은 자를 지배하는 신들, 시간을 나타낸다. 트라이벌 문양에서 트라이벌(tribal)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이며 자기 충족적인 무문자 사회에 사는 집단 즉, 부족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검은색으로 기하학적인 형태이며, 대상을 단순하면서도 곡선으로 장식화한 스타일로 부족적, 주술적인 의식을 상징한다.

### Ⅲ. 타투 관련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 나타난 타투 문양 분석

#### 1. 분석 대상 및 방법

최근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타투 문양의 종류와 타투의 위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2004년 11월 현재 가장 많은 회원 수를 확보하면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국내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인 ‘J-Tattoo’(www.jtattoo.cyworld.com)와 ‘TattooBuy’(www.tattooBuy.cyworld.com), ‘가장 재밌는 문신 카페’(www.cafe.daum.net/tattoo333)와 ‘문신예술의 세계’(www.cafe.daum.net/tattoo)를, 국외 사이트로는 사진자료가 풍부하며 문양의 형태와 인체상의 위치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많은 ‘www.bmezine.com’과 ‘www.eytattoo.com’을 선정하였다. 국내 사이트에서 1,013개, 국외 사이트에서 1,042개 등, 총 2,055개의 타투 사진을 추출하였는데, 그 중에서 타투의 위치와 문양의 형태가 분명하지 않은 163개를 제외시킨, 1,892개의 타투 사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타투 문양 분석 방법은 첫째 문양분류에 관한 선행연구<sup>29)</sup>를 참고로, 표현 대상에 따라 문양군을 자연문, 동물문, 식물문, 인공문, 기하문과 복합문, 인

물문과 문자문을 포함하는 기타문으로 분류하였고, 둘째, 각 문양군에 나타난 문양의 빈도수를 구해 남녀 성별에 따라서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타투의 위치가 신체 각 부위 중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빈도수로 구했으며, 남녀 성별에 따라서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 2. 타투 문양의 종류

국내·국의 사이트에서 수집한 타투에 사용된 문양을 표현 대상에 따라 자연문, 동물문, 식물문, 인공문, 기하문, 복합문, 인물문, 기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문양군에 따른 빈도수는 동물문 587(31.0%), 인물문(24.1%), 기하문 246(13.0%), 자연문 195(10.3%), 식물문 88(4.7%), 복합문 47(2.5%), 인공물문 41(2.2%)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가 232개로 12.3%를 차지했다. 문양별로는 용이 195개 1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별 165(8.7%), 트라이별 162

(8.6%), 여자 143(7.6%), 해골 92(4.9%), 문자 91(4.8%), 나비76(4.1%), 요정 76(4.0%)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문중에서도 용(10.3%)<그림 5>이 가장 많았고, 나비(4.1%), 호랑이(2.7%), 잉어(2.2%) 순으로 나타났다. 문양군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용은 동양권에서는 용은 성스러운 영물로서 인간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는 은혜 깊은 하늘의 존재이지만 서양권에서는 피해를 주는 파괴적인 악의 이미지를 가지며, 힘과 성취를 상징한다. 인물문에서는 여자(7.6%), 요정 76(4.0%), 악마 72(3.8%), 만화·영화 캐릭터 53(2.8%)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의 여자 문양은 매우 선정적인 이미지의 여성의 모습을 모티브로 한 타투 문양으로, 이는 타투의 동기 중 성적 욕망이나 성적 도착의 억압과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기하문에서는 과거 종족과 부족을 상징하는 트라이별<그림 7>이 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하트(2.3%), 십자가(1.2%), 음표(0.7%) 순이었다. 자연문에서는

<표 1> 타투 문양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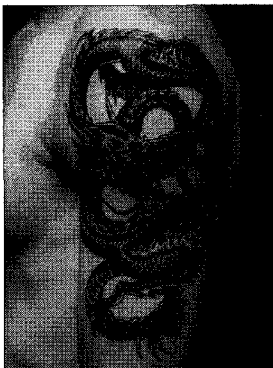
빈도(%)

문양군	문양
동물문 587(31.0)	용 195(10.3), 나비 76(4.1), 호랑이 52(2.7), 잉어 41(2.2), 봉황 38(2.0), 독수리 25(1.3), 도마뱀 21(1.1), 비둘기 21(1.1), 갯벌 13(0.7), 늑대 12(0.6), 뱀12(0.6), 거미 11(0.6), 전갈 10(0.5), 말 8(0.4), 고양이 6(0.3), 곰 6(0.3), 거북이 6(0.3), 개구리 6(0.3), 사자 5(0.3), 잠자리 4(0.2), 박쥐 4(0.2), 돌고래 3(0.2), 문어 3(0.2), 코뿔소 2(0.1), 개 2(0.1), 올빼미 2(0.1), 백조 1(0.1), 학 1(0.1), 해마 1(0.1)
인물문 456(24.1)	여자 143(7.6), 요정 76(4.0), 악마 72(3.8), 만화·영화 캐릭터 53(2.8), 천사 28(1.5), 연예인 26(1.4), 예수 22(1.2), 장군 16(0.8), 인도신 13(0.7), 부처 7(0.4)
기하문 246(13.0)	트라이별 162(8.6), 하트 44(2.3), 십자가 22(1.2), 음표 14(0.7), 문장 4(0.2)
기타 232(12.3)	해골 92(4.9), 문자 91(4.8), 근육과 뼈 37(2.0), 인체기관 12(0.6)
자연문 195(10.3)	별 165(8.7), 해 18(1.0), 달 5(0.3), 불 5(0.3), 구름 1(0.1), 번개1(0.1)
식물문 88(4.7)	장미 29(1.5), 추상화 된 꽃 12(0.6), 나무 9(0.5), 나뭇잎 7(0.4), 연꽃 7(0.4), 초롱꽃 6(0.3), 나리 4(0.2), 매화 3(0.2), 당근 3(0.2), 코스모스 2(0.1), 클로버2(0.1), चे리 2(0.1), 목련 1(0.1), 포도 1(0.1)
복합문 47(2.5)	꽃+나비 36(1.9), 비둘기+글씨 11(0.6)
인공물문 41(2.2)	달 7(0.4), 칼 6(0.3), 카드 4(0.2), 기타 4(0.2), 총 4(0.2), 라디오 2(0.1), 말발굽 2(0.1), 왕관 2(0.1), 마이크 1(0.1), 열쇠 1(0.1), 당구공 1(0.1), 도끼 1(0.1), 하프 1(0.1), 비행기 1(0.1), 저울 1(0.1), 엔진 1(0.1), 오토바이 1(0.1), 이어폰1(0.1)
계	1,892(100)

최고(prime)를 상징하며, 신을 뜻하는 기호 중의 하나인 별(8.7%)<그림 8>이 가장 많았고 해(1.0%), 달(0.3%), 불(0.3%) 순으로 나타났다. 식물문에서는 장미(1.5%)<그림 9>가 가장 많았는데 장미 문양은 성적인 욕망을 상징하며,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사랑과 풍요, 미, 처녀성을 상징함과 동시에 관능과 음탕함, 정념 등을 나타내며 또한 침묵, 비밀, 신중하게 숙고함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추상화된 꽃(0.6%), 나뭇잎(0.4%), 나무(0.4%), 복합문에서는 꽃과 나비(1.9%)<그림 10>, 비둘기와 문자(0.6%) 순이었다. 인공물문에서는 타투를 한 당사자가 선호하는 물건이나 취미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문양 또는 상징적 이미지를 지니는 문양들이 많았는데, 닳(0.4%)<그림 11>, 칼(0.3%), 카드(0.2%),

기타(guitar)(0.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문에서는 해골(4.9%), 문자(4.8%), 근육과 뼈 37(2.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2>의 해골 문양은 죽음과 인생의 무상함, 복수를 상징하며, 바이커(biker)족과 같은 집단적인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타투 문양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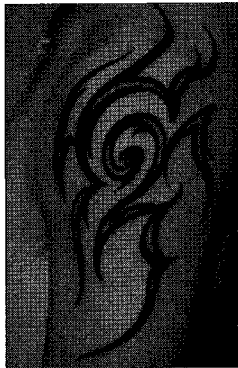
남녀별로 선호하는 타투 문양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남성들이 선호하는 타투 문양은 <표 2>와 같이 동물문이 362(30.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인물문 333(28.3%), 기타문 171(14.6%), 자연문 71(6.0%), 인공물문 33(2.8%), 식물문 16(1.4%) 복합문 5(0.4%)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187개로 15.7%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문양은 용 158(13.4%)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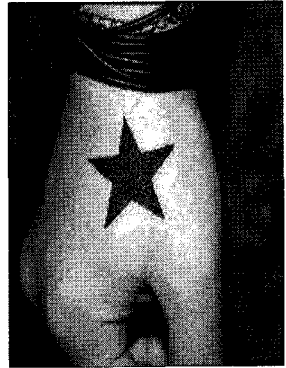
<그림 5> 용,  
www.tattoobuy.cyworl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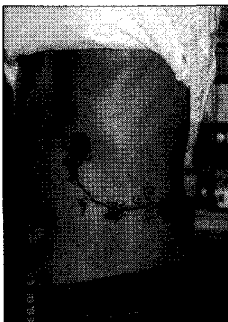
<그림 6> 여자,  
www.jtattoo.cyworld.com



<그림 7> 트라이벌,  
www.tattoobuy.cyworl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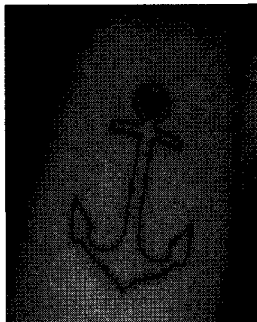
<그림 8> 별,  
www.jtattoo.cyworl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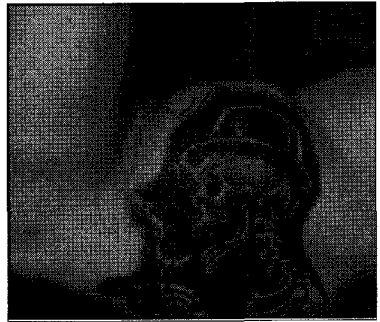
<그림 9> 장미,  
www.cafe.daum.net/  
tattoo



<그림 10> 꽃과 나비,  
www.tattoobuy.cyworld.com



<그림 11> 닳,  
www.bmezine.com



<그림 12> 해골,  
www.bmezine.com



타투 관련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 나타난 타투 문양 분석

<표 2> 남성들이 선호하는 타투 문양

빈도(%)

문양군	문양
동물문 362(30.8)	용 158(13.4), 호랑이 40(3.4), 잉어 34(2.9), 봉황 19(1.6), 늑대 12(1.0), 뱀 11(0.9), 도마뱀 9(0.8), 전갈 7(0.6), 거북이 6(0.5), 곰 6(0.5), 사자 5(0.4), 깃털5(0.4), 거미 4(0.3), 박쥐 4(0.3), 말 4(0.3), 비둘기 3(0.3), 고양이 2(0.2), 개 2(0.2), 독수리 2(0.2), 돌고래 2(0.2), 문어 2(0.2), 올빼미 2(0.2), 잠자리 2(0.2), 코뿔소 2(0.2), 학 1(0.1), 나비(0.1)
인물문 333(28.3)	여자 126(10.7), 악마 72(6.1), 만화·영화 캐릭터 36(3.1), 연예인 22(1.9), 예수 21(1.8), 장군 16(1.4), 인도신 13(1.1), 천사 12(1.0), 요정 10(0.9), 부처 5(0.4)
기타 184(15.7)	해골 84(7.1), 문자 57(4.9), 근육과 뼈 37(3.1), 인체기관 6(0.5)
기하문 171(14.6)	트라이앵글 128(10.9), 하트 20(1.7), 십자가 16(1.4), 문장 4(0.3), 음표 3(0.3)
인공물문 33(2.8)	땃 5(0.4), 칼 5(0.4), 기타 4(0.3), 카드 4(0.3), 총 3(0.3), 라디오 2(0.2), 왕관 1 (0.1), 엔진 1(0.1), 오토바이 1(0.1), 이어폰 1(0.1), 마이크 1(0.1), 열쇠 1(0.1), 당구공 1(0.1), 도끼 1(0.1), 하프 1(0.1), 비행기 1(0.1)
자연문 71(6.0)	별 55(4.7), 해 11(0.9), 불 3(0.3), 달 1(0.1), 구름 1(0.1)
식물문 16(1.4)	나뭇잎 5(0.4), 나무 4(0.3), 장미 3(0.3), 연꽃 2(0.2), 추상화된 꽃 1(0.1), 클로버1(0.1)
복합문 5(0.4)	비둘기+글썸 5(0.4)
계	1,175(100)

<표 3> 여성들이 선호하는 타투 문양

빈도(%)

문양군	문양
동물문 225(31.4)	나비 75(10.5), 용 37(5.2), 봉황 19(2.6), 비둘기 18(2.5), 도마뱀 12(1.7), 호랑이12(1.7), 깃털 8(1.1), 거미 7(1.0), 잉어 7(1.0), 개구리 6(0.8), 독수리 5(0.7), 고양이 4(0.6), 말 4(0.6), 전갈 3(0.4), 잠자리 2(0.3), 돌고래 1(0.1), 백조 1(0.1), 문어 1(0.1), 해마 1(0.1), 뱀1(0.1)
자연문 124(17.3)	별 110(15.3), 해 7(1.0), 달 4(0.6), 불 2(0.3), 번개 1(0.1)
인물문 123(17.2)	요정 66(9.2), 여자 17(2.4), 만화·영화 캐릭터 17(2.4), 천사 16(2.2), 연예인 4(0.6), 부처 2(0.3), 예수 1(0.1)
기하문 75(10.5)	트라이앵글 34(4.7), 하트 24(3.3), 음표 11(1.5), 십자가 6(0.8)
식물문 72(10.0)	장미 26(3.6), 추상화된 꽃 11(1.5), 초롱꽃 6(0.8), 나무 5(0.7), 연꽃 5(0.7), 나리4(0.6), 당근 3(0.4), 매화 3(0.4), 나뭇잎 2(0.3), 코스모스 2(0.3), 체리 2(0.3), 목련 1(0.1), 클로버 1(0.1), 포도 1(0.1)
기타문 48(6.7)	문자 34(4.7), 해골 8(1.1), 인체기관 6(0.8)
복합문 42(5.9)	꽃+나비 36(5.0), 비둘기+글썸 6(0.8)
인공물문 8(1.1)	땃 2(0.3), 말발굽 2(0.3), 왕관 1(0.3), 저울 1(0.1), 칼 1(0.1), 총 1(0.1)
계	717(100)

트라이앵글 128(10.9%), 여자 126(10.7%), 해골 84 (7.1%), 악마 72(6.1%), 문자 57(4.9%), 별 55(4.7%),

호랑이 40(3.4%) 순이었다.

여성들이 선호하는 타투 문양은 <표 3>과 같이 동물문이 225개(31.4%)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자연문 124(17.3%), 인물문 123(17.2%), 기하문 75(10.5%), 식물문 70(10.0%), 복합문 42(5.9%), 인공물문 8(1.1%) 순이었고, 기타가 171개로 23.8%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여준 문양은 별 110(15.3%)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나비 75(10.5%), 요정 66(9.2%), 용 37(5.2%), 꽃+나비 36(5.0%), 트라이벨 34(4.7%), 문자 34(4.7%), 장미 26(3.6%) 순으로 나타났다. 나비 문양은 연인과 한(恨)을 상징하며, 그 변모에 의한 부활을 의미한다. 또한 순수한 영혼, 신의 불, 죽은자의 영혼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남녀별로 선호하는 타투 문양의 종류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문양군은 모두 동물문이었으나, 남성은 용 문양을, 여성은 나비 문양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선호도가 나타났던 별 문양은 상대적으로 남성에게서는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남성들에게 있어서 높은 선호도가 나타났던 여자 문양은 상대적으로 여성에게서는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남성은 주로 초자연적인 용맹성, 신령, 성적 욕망, 토테미즘, 가학적, 위협적인 남성다움을 표현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주는 용, 트라이벨, 여자, 해골, 악마와 같은 문양을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여성의 관능적 아름다움과 묘한 느낌의 도발적인 섹시한 이미지, 로맨틱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별, 나비, 요정, 용, 꽃+나비 문양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 타투의 신체위치

타투의 신체위치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타투의 위치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 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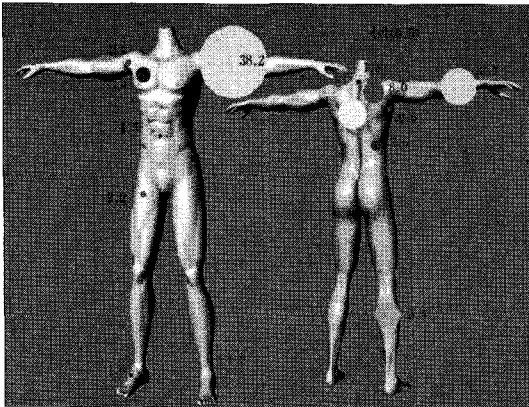
<표 4> 타투의 신체위치의 빈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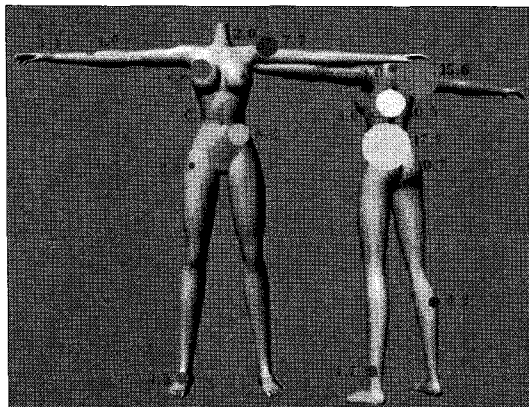
신체 위치	전체	남	여
머리	6(0.3)	6(0.5)	0(0.0)
귀	3(0.2)	1(0.1)	2(0.3)
목	19(1.0)	5(0.4)	14(2.0)
목아래	43(2.3)	21(1.8)	22(3.0)
어깨	206(10.8)	94(8.0)	112(15.6)
등	198(10.5)	123(10.5)	75(10.5)
가슴	119(6.3)	63(5.4)	56(7.8)
가슴-팔	28(1.5)	26(2.2)	2(0.3)
배	21(1.1)	15(1.3)	6(0.8)
뒤골반	132(7.0)	5(0.4)	127(17.7)
앞골반	60(3.2)	1(0.1)	59(8.2)
옆구리	52(2.7)	30(2.6)	22(3.0)
허벅지	44(2.3)	26(2.2)	18(2.5)
영덩이	5(0.3)	0(0.0)	5(0.7)
종아리	141(7.5)	111(9.4)	30(4.2)
발목	48(2.5)	14(1.2)	34(4.7)
발등	35(1.8)	3(1.0)	32(4.5)
위 팔	504(26.6)	449(38.2)	55(7.7)
팔목	190(10.0)	161(13.7)	29(4.0)
손목	12(0.6)	4(0.3)	8(1.1)
팔꿈치	5(0.3)	2(0.2)	3(0.4)
손등	6(0.3)	6(0.5)	0(0.0)
전신	10(0.5)	7(0.6)	3(0.4)
기타	5(0.3)	2(0.2)	3(0.4)
계	1,892(100)	1,175(62)	717(38)

는 위팔 504(26.6%)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어깨 206(10.8%), 등 198(10.5%), 팔목 190(10%), 종아리 141(7.5%), 뒤 골반 132(7.0%), 가슴 119(6.3%) 순이었다.

남녀별로 타투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타투 위치 중 위팔이 449개(38.2%)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고, 그 밖에 팔목 161(13.7%), 등 123(10.5%), 종아리 111(9.4%), 어깨 94(8.0%)가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13>. 여성의 타투 위치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 곳은 뒤 골반 127(17.7%)이며, 그 다음은 어깨 112(15.6%), 등 75(10.5%), 앞골반 59(8.2%), 가슴 56(7.8%), 위팔 55(7.7%)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4>.



<그림 13> 남성들이 선호하는 타투의 위치



<그림 14> 여성들이 선호하는 타투의 위치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타투 위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남성들이 남성의 강인한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 주로 근육이 잘 형성되어 있는 상반신의 신체 부위를 많이 선호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인체의 은밀한 부위인 벨트 라인의 골반 위치와 등, 어깨 등 옷을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위치로 타투 자체가 하나의 액세서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신체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위나 착시효과를 주어 허리가 가늘어 보일 수 있는 곳과 같은 신체 위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론

이상으로 본 연구는 타투의 어원 및 개념, 타투의 종류, 상징성에 대하여 고찰한 다음 국내·외 타투 관련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와 전문 사이트에서 추출한 1,892개의 타투 문양의 종류와 타투 위치를 분석하였다.

타투의 어원은 라틴어 스티그마에서 유래된 것으로, 피부나 피하조직에 글씨, 그림, 무늬 따위를 새긴다는 의미를 지니며, 타투의 종류는 크게 영구적인 타투와 비영구적인 타투로 나뉜다. 영구적인 타투에는 피부색에 따라 상흔 타투와 색소를 피하에 침착시키는 타투가 있고, 비영구적인 타투에는 해나와 플라노 아트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바디 페인팅, 메이크업, 바디 프린팅과 실 등도 넓은 의미로 비영구적인 타투에 포함된다. 타투는 과거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한 문화로써 사회적 일탈계층의 전유물 이었다. 그러나 전사 타투와 제거 테크닉의 개발,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의 다양한 활용은 타투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타투는 무시할 수 없는 대중문화 현상으로 현대인의 패션 아이템이며, 획일화된 디지털 시대에 나만의 특별함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투를 독창적이면서 개성있는 토털 코오디네이션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자

리매김시키고, 새로운 이미지의 패션 타투 상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타투 관련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와 전문 사이트에 나타난 타투 문양의 종류와 그 신체위치를 남녀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양군에 따른 빈도수는 동물문, 인물문, 기하문, 자연문, 식물문, 복합문, 인공물문 순으로 나타났다. 문양별로는 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별, 트라이벨, 여자, 해골, 문자, 나비, 요정 순으로 성스러운 영물로써 인간에게 유익한 영향을 준다는 믿음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문양이나 타투의 동기 중 성적 욕망이나 성적 도착의 억압과 같은 것을 표현하는 문양, 과거 종족과 부족을 상징하는 문양, 선호하는 물건이나 취미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문양 또는 상징적 이미지를 지니는 문양들이 선호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녀별로 선호하는 문양군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선호하는 문양군으로는 동물문이 가장 많았고, 인물문, 기하문, 자연문, 인공물문, 식물문, 복합문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여준 문양은 용이었고, 트라이벨, 여자와 해골, 악마, 문자, 별, 호랑이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선호하는 타투 문양은 동물문이 가장 많았고, 자연문, 인물문, 기하문, 식물문, 복합문, 인공물문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여준 문양은 별이었고, 나비, 요정, 용, 꽃과 나비, 트라이벨, 문자, 장미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녀 모두 동물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한 문양군은 남성은 인물문이 여성은 자연문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상위 4개의 문양군들의 빈도수 간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은 주로 초자연적인 용맹성, 신령, 성적 욕망, 토테미즘, 가학적, 위협적인 남성다움을 표현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주는 문양을 선호하며, 여성은 여성의 관능적 아름다움과 묘한 느낌의 도발적인 섹시한 이미지, 로맨틱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문양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타투가 표현된 위치는 위팔이 가장 많았고,

어깨, 등, 팔목, 종아리, 뒤골반, 가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사이트별로 타투의 신체위치를 분석한 결과, 국내 사이트에서는 위팔이 가장 많았고, 어깨, 등, 팔목, 뒤골반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 사이트에서는 위팔이 가장 높았고, 팔목, 등, 어깨, 종아리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사이트에서 모두 선호하는 타투의 위치로 위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그 다음 순위는 국내 사이트에서는 어깨, 국외 사이트에서는 팔목으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넷째, 남녀별로 선호하는 타투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선호하는 위치 중 위팔이 가장 많았고, 팔목, 등, 종아리, 어깨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타투 위치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 곳은 뒤골반이었고, 어깨, 등, 앞골반, 가슴, 위팔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은 선호하는 타투 위치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강인한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 주로 근육이 잘 형성되어 있는 상반신의 신체 부위를 많이 선호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벨트 라인의 골반과 어깨 부위처럼 옷을 착용했을 때 타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 타투 자체가 하나의 액세서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와 허리가 가늘어 보일 수 있는 위치와 같은 착시효과를 주는 신체 위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드 바디(Fashioned Body)에 대한 관심과 꾸며진 신체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투는 일상화한 노출에 자신만의 개성을 부여할 수 있는 패션 액세서리 역할을 하며, 패션의 주요한 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성별에 따른 선호 문양과 신체상의 위치 분석을 통해 선호 문양 및 신체 위치에 따른 다양한 예술적 문양 및 기법, 소재 개발과 함께 타투 문양을 모티프로 활용한 패션 아이템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앞으로 타투가 개인의 개성과 감각, 그리고 감성까지 표현할 수 있는 패션 디자인의 또 다른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자 패션 아이템으로써 활용되기 위해서는 패션과의 접목을 시도한 새로운 예술적 문양 개발 및 일본과 서양 문양에 한정되어 있는 타투 문양에서 벗어난 한국적 이미지를 모티프로 활용한 다양한 타투 문양 디자인

인 개발 및 타투와 패션과의 접목을 통한 패션 아이템 개발 및 상품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수경 (1994). 한국 전통 문양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 관한 연구. *복식*, 2(2), pp. 283~295.  
 최혜정 (1989).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문양과 상징성에 관한 고찰. *복식*, (13), pp. 51~72.

## 참고문헌

- 1) 조현설 (2002). 동아시아 문신의 유래와 그 변이에 관한 시론. *한국민속학*, 35, p. 151.
- 2) Victoria Lautman (1994). *The new tattoo*, Abbeville Press, p.7
- 3) *Ibid.*, p. 7.
- 4) 조현설. *앞의 책*, p. 151.
- 5) 윤정혜, 유영선 (2001). 복식에 나타난 타투 룩(Tattoo Look) 패션의 표현 특성. *복식*, 51(3), pp. 87~98.
- 6) 이수경 (2003). 문신의 에로티시즘을 응용한 현대패션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미영 (2005). 타투 패션에 따른 패션감성과 감정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김영미 (2005). 현대패션에 나타난 Tattoo look의 조형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Steve Gilvert (2000). *A source book: Tattoo history*, Juno Books, p. 15.
- 10) 동아 프라임 영화사전 (1996). 동아출판사, p. 2373.
- 11) Victoria Lauteman, *op. cit.*, p. 8.
- 12) 박영수 (1997). *마음은 인체의 어디에 담겨있을까*. 을유문화사, p. 227.
- 13) Victoria Ebin 저, 임숙자 역 (1988). *신체장식(The Body Decorated)*, 경춘사, p. 83.
- 14) Victoria Lauteman, *op. cit.*, p. 8.
- 15) Karl Groning (1997). *Decorated skin-a world survey of body art*, Thames and Hudson, p. 222.
- 16) 문형진 (2000). 문신의 풍습과 그 유래. *한국외대국제지역연구*, 4(4), p. 167.
- 17) 조현설. *앞의 책*, pp. 54-59.
- 18) 위의 책, pp. 56-57.
- 19) Steve Gilvert. *앞의 책*, p. 11.
- 20) 조현설. *앞의 책*, p. 58.
- 21) Victoria Ebin 저, 임숙자 역. *앞의 책*, p. 27.
- 22) 조현설. *앞의 책*, p. 58.
- 23) 인도 전승의학. 아유르는 장수, 베다는 지식이라는 뜻으로 생명(건강)과학이다.
- 24) 조현설. *앞의 책*, p. 58.
- 25) 윤정혜, 유영선. *앞의 책*, p. 89.
- 26) J.C. 쿠퍼, 이윤기 역 (1991).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p. 110.
- 27)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문화상징사전*, 제1권, 두산동아, 1992, p. 509.
- 28) J.C. 쿠퍼, 이윤기 역. *앞의 책*, pp. 294~295.
- 29) 서미아 (1985). 의복의 무늬 기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3), pp. 207~226.  
 이인자 (1998). 직물문양 차이에 따른 이미지 지각. *생활 문화·예술 논집*, 21(1), pp. 41~54.